K리그에서 월드컵까지! 축구 직관러 되다!!

김준규 CBS 정보네트워크부 엔지니어

94년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미국 월드컵 1차전을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봤던 날. 축구의 매력에 처음 빠졌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TV를 통해서만 즐기던 축구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한두 번 찾아갔던 K리그의 경기장과 그곳에서 느낀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응장함에 한껏 매료되어 점점 축구 직관(직접 관람)에 재미를 붙였다. 소소한 취미였던 K리그 직관이 꿈의 무대 월드컵 직관이 되기까지! 이제부터 나의 축구 직관 스토리를 시작한다.

아직도 K리그를 몰라?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는 1983년 5개 팀(할렐루야, 유공, 대우, 포항제철, 국민은행)으로 출범했다. 2023년 41회째를 맞는 K리그는 올 시즌 K리그2로 신규 전환한 '천안시티FC'와 '충북청주FC'를 포함하여 총 25개 팀(K리그1 12개 팀, K리그2 13개 팀)이 리그에서 경쟁한다.

K리그 로고 / 출처 : K리그 홈페이지

K리그 팀은 각각 지역 연고지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25개 팀이 23개 도시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K리그 경기와 연계해 연고 지역을 함께 여행한다면 한 해 23개 이상의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데, 이는 필자가 축구 직관과 지역 투어를 겸하는 여행 계획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이기도 하다.

영원한 건 없다! K리그1, K리그2 승강제

40여 년의 역사가 있는 K리그지만 해외의 프로축구리그처럼 K리그1(K1)과 K리그2(K2) 팀들의 승강제(승격과 강등)를 도입한 건 2012년부터였다. 승강제는 말 그대로 K1에서 성적이 낮은 팀은 다음 시즌 K2로 강등되고, K2에서 성적이 좋은 팀은 K1으로 승격하는 시스템이다.

K리그 승강제도도 10여 년이 지나며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2년 현재 K1 최하위(12위) 팀은 K2로, K2 최상위(1위) 팀은 K1으로 자동 승강되고, K1 11위 팀과 K2 2위 팀은 홈 & 어웨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진 팀이 K2로 강등된다. 또한, K2 3~5위 팀은 서로 플레이오프를 치러 최종 플레이오프 승자를 정한 후, K1 10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강 여부를 정한다. 승강을 놓고 경기를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해당 팀들에게는 벼랑 끝 경기이므로 팬들의 관심과 열기,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만날 수 있어서 직관을 위한 재밌는 경기들이 되곤 한다.

K리그1		K리그2
10위	승강 PO	3위 플레이오프 승자 * 3위 vs (4위 vs 5위 승자)
11위	승강 PO	2위
12위	강등 ⇄ 승격	1위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 재밌는 K리그 더비

엘클라시코(레알 마드리드 vs 바르셀로나), 북런던 더비(토트넘 vs 아스널), 맨체스터 더비(맨유 vs 맨시티) 등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라이벌 대결을 더비 경기라고 한다. K리그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인기 있는 라이벌전은 바로 '슈퍼매치'(서울 vs 수원, 수원 vs 서울)이다. 서울의 전신인 안양LG의 서울 연고지 이전 문제, 서울과 수원의 지리적 가까움, 2000년대 두 팀의 인기와 좋은 성적 등이 계기가 된 슈퍼매치는 경기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찾을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더비가 되었다.

이외에도 범현대가(家) 기업을 모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K리그1에서 1, 2위를 다투는 팀인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포터즈들이 열성적이기로 유명한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등이 유명하다. 라이벌의 경기인만큼 역사가 깊고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며, 더비팀들의 객관적 전력과 상관없이 늘 치열한 경기를 보여줘 더비 경기는 축구 팬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직관하기에도 좋은 경기들이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 경기장 별명을 불러줘!

K리그는 K1, K2 총 25개 팀이 참가하는 만큼 전국에 25개의 홈구장이 있다. 팀마다 역사와 전통, 스토리가 있는 만큼 팬들이 부르는 애칭을 가진 경기장들도 있다. 마치 리버풀의 '안필드(Anfield)', 바르셀로나 '캄프 누(Camp nou)'와 비슷한 것이다. 경기를 보

슈퍼매치 - FC서울 서포터즈

슈퍼매치 - 수원삼성 서포터즈

K리그1				K리그2			
팀 명	홈 경기장	애칭	비 고	팀 명	홈 경기장	애칭	비 고
울산	울산월드컵경기장	빅크라운		김천 상무	김천종합운동장		23년 강등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성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탄필드	23년 강등
포항	포항스틸야드	스틸야드		안양	안양종합운동장		
인천	인천축구전용구장	숭의 아레나		경남	창원축구센터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윈드 포스		부천	부천종합운동장	헤르메스 캐슬	
강원	강릉종합운동장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수원 FC	수원종합운동장	캐슬파크		서울 이랜드	목동종합운동장	목동 레울파크	
대구	대구은행파크	대팍		김포	솔터체육공원	솔터 / 아레나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상암벌		안산	안산와~스타디움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빅버드		부산	부산아시아드		
광주	광주축구전용구장		23년 승격	전남	광양축구전용구장	드래곤 던전	
대전	대전월드컵경기장	퍼플 아레나	23년 승격	천안 시티	천안축구센터		23년 신규참가
				충북 청주	청주종합경기장		23년 신규참가

러 갈 때, 단순히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전용구장으로 부를 때보다 각 경기장의 애칭을 부르면 왠지 모를 친근감과 함께, 그 경기장과 팀,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소속감이 느껴진다.

K리그까지 직관하는 이유?

역대급 경기력으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룬 카타르 월드컵. 선수 한 명 한 명 모두 제 역할을 다했지만, 이번 월드컵이 발견한 최고의 스타는 조규성 선수이다.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한 경기 두 골이라는 놀라운 실력과 조각 같은 외모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조규성은 개인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K리그가 만들어 낸 스타라는 스토리를 가진 선수이다.

2019년 K리그2 안양에서 활약하며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조규성은 이후, 전북과 김천상무(군 복무)를 거쳐 2022년 K리그1의 득점왕이 되었다. K2, K1을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은 그가 월드 클래스들이 모인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 그게 바로 K리그의 수준이고 K리그도 볼 만한 리그인 이유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넣은 총 5골 가운데 4골이 현재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조규성, 김영권, 백승호)에 의한 골이었고,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3위를 결정짓는데 큰 활약을 한, 크로아티아의 오르시치(K리그 시절 이름 : 오르샤)도 K리그를 통해 성장했다.

규모와 예산은 적지만, 그 수준은 꽤 높은 K리그! 실제 경기를 직접 관람하면서 팬들의 응원 열기, 선수들의 움직임과 팀의 전술, 그리고 성장할 나만의 선수를 찾는 재미가 꽤 쏠쏠하며 이게 바로 K리그 직관의 묘미다.

첫 국가대항전 직관, 2015 아시안컵(호주)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넘지 못한 국가대항전이 아시안컵이다. 56년과 60년에 열린 1, 2회 대회를 우승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시아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는 단 한 차례만 결승에 진출했다.

축구를 직관할 때, 국가대항전만큼 흥분과 짜릿함을 주는 경기들도 없는 것 같다. 평소에는 몰랐던 애국심이 끓어 오르고, 주로 국가대항전들이 나라 밖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 내용과 결과가 좋으면 괜한 자부심도 생긴다. 2015년 근래 들어 가장 좋은 성적(준우승)을 냈던 2015년 아시안컵이 내게 그랬고, 그 당시 호주의 교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기억이 난다. 월드컵 16강만큼 대한민국 대표팀의 새로운 목표이기도 한 아시안컵은 올해 카타르에서 6월에 열릴 예정이다.

다양한 디자인의 티켓 수집도 서브 취미가 된다

2015 아시안컵 결승전(대한민국 vs 호주)

결승전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 세리머니

대한민국 예선경기가 열린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팬 페스티벌 현장

드디어 꿈의 무대 월드컵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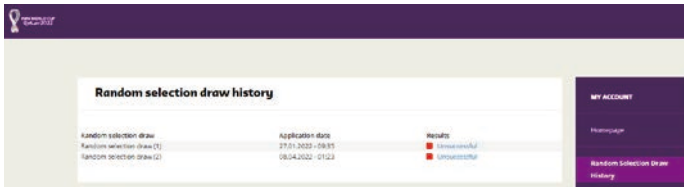
리그, 챔피언스리그, 각종 컵 대회, 연령별 국가대항전, 올림픽 등 수많은 우승 경험을 했던 아르헨티나의 메시도 은퇴 전 그토록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바랐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밟기를 원하는 그 월드컵 무대! 선수 못지않게 축구장을 찾는 팬에게도 월드컵은 꿈의 무대다.

TV로 축구를 처음 봤던 그 옛날, 그리고 K리그 경기를 처음 본 그 어느 날, 나에게 스스로 다짐했던 월드컵 직관의 꿈. 중동에서 처음 열린 겨울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그렇게 나의 첫 꿈의 무대가 되었다.

월드컵? 뭐부터 준비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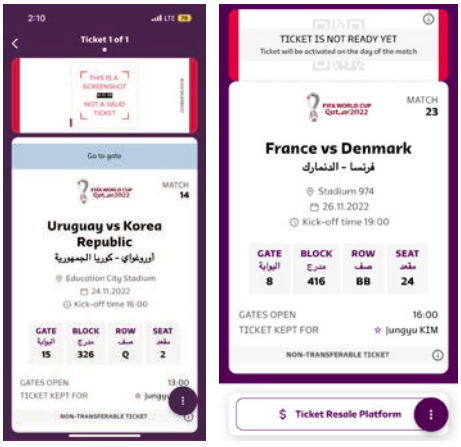
*** 월드컵 티켓**

조별 예선 기준 8~30만 원 정도 하는 티켓의 가격은 문제가 아니었다. 티켓 자체를 구하는 것이 전쟁이고 꽤 노력이 필요했다. 월드컵 티켓은 경기가 열리기 약 10개월 전부터 1차 판매를 시작으로 총 3차례 기간에 걸쳐 판매되었다.



월드컵 티켓 예매(1차, 2차 무작위 추첨 판매에서 탈락)

1차와 2차는 무작위 추첨, 3차는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하는데 1차 판매 기간에는 경기장 및 팀별 묶음 경기 형태로, 2차 기간에는 개별 경기별 티켓을 판매한다. 마지막 3차 기간에는 남은 티켓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이 기간에는 팬들 간의 공식 재판매(RESALE) 티켓도 판매한다. 각 판매 기간 초에 월드컵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대와는 달리 '○○시간 대기 중' 또는 접속 불가 화면을 맞이한다. 저녁에 사이트를 열어놓고 아침에 다시 보면 접속되어 있기도 한데,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실감 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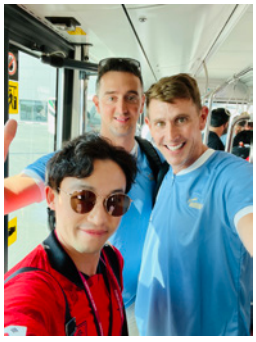
월드컵 모바일 티켓

*** 비행기와 숙박?**

카타르는 관광업이 발달한 도시는 아니어서 관람객을 수용할 만큼의 숙박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 부랴부랴 팬 빌리지를 만들어 간이 팬 숙소, 크루즈 숙소, 사막 숙소 등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숙소의 수는 관람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두바이 숙소와 응원준비물

비행기 티켓, 팬카드(하야카드), 가이드북 등



월드컵에서 만난
전 세계 축구 팬들

했다. 또한, 숙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도 호텔급은 몇백만 원, 팬 숙소도 최소 몇십만 원이라 숙소에 대한 고민이 컸다.

주최 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아랍 국가(UAE, 사우디, 오만 등)의 숙소를 이용하고 카타르로의 왕복 매치데이 셔틀 비행기를 마련해 팬 유치에 나섰다.

필자도 천정부지의 숙박비용과 구하기조차 어려운 카타르 숙소 공급 때문에 두바이를 베이스캠프 삼아 경기가 있는 날만 '두바이-카타르'를 왕복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짰다. (대한민국-두바이 왕복 비행 편, 매치데이셔틀 비행 편 3회 왕복, 두바이 숙소 7일 숙박)

그래서 얼마나 들어??

항 목	내 용	비 용
항공권	인천-두바이(왕복)	110만원
	매치데이셔틀 (두바이-카타르 3회 왕복)	105만원
경기티켓	3경기 (1등석 1장, 2등석 2장)	75만원
숙소	두바이 7박	100만원
생활비	식비, 대중교통비, 기념품 등 (10~15만원 / 1일)	100만원
합 계		490만원

내가 뽑은 월드컵 이모저모

월드컵 직관이 주는 매력은 마치 마약 같았다. 카타르에서 만난 전 세계 팬들은 어디서나 흥분과 열정 속에 있었고,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였다. 카타르 왕복 비행기와 공항 등 도시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국가 응원가를 부르는 팬이 보였고, 각양각색의 국가별 응원과 그걸 따라 하는 다른 나라의 팬들도 많이 있었다. 경기장 내외부에서는 스타 선수와 팀 이야기로 다른 나라 팬들과 소통하는 월드컵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 참 좋았다.

*** 메트로 디쓰웨이(This way)**

www.youtube.com/shorts/qs_tkLi1BU
www.youtube.com/shorts/5OJh0UAw8vY
www.youtube.com/shorts/2QjvgTZzVyc

경기장 밖, 팬들에게 최고 슈퍼스타는 길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주로 경기장 근처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특유의 억양과 몸짓으로 'this way'를 외치는데 묘한 끌림이 있어 팬들이 많이 좋아했고 직업 정신이 느껴졌다.

*** 축구장에 맥주가 없다고?**

스포츠 경기와 함께하는 맥주 한 잔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아랍권 문화를 지닌 카타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맥주를 금지했다. 임시방편으로 알코올 프리 제로 맥주를 판매했으나, 어딘가 모를 1%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심지어 물가가 높은

알코올 제로 맥주만 판매하는 경기장

카타르에서 제로 맥주 한 잔을 15,000원 넘는 가격에 마시자니 무척 아까운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경기를 볼수록 당기는 맥주의 끌림을 결국 참지 못했고, 제로 맥주도 나름 적응하니 괜찮았다.

*** 사막의 나라? 더위는 어떻게?**

관람석 아래 에어컨 시설

한여름 기온이 50℃에 육박하는 카타르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겨울에 월드컵이 열렸다. 겨울에도 30℃ 가까운 기온이기에 월드컵 전부터 경기장 내 에어컨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실제로 낮 경기가 있던 날, 경기장 밖은 햇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 온몸이 땀으로 젖고, 얼굴이 다 타들어 갈 지경이었지만, 경기장 안은 무척이나 쾌적하고 시원했다. 경기장 전체의 공조 시설뿐만 아니라 관람 의자 무릎 아래마다 설치된 에어컨! 오일머니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직관은 계속된다

축구를 좋아해 K리그 경기장에 한두 번 찾아가던 것이 이제는 국내 리그뿐만 아니라, 국가대항전들을 직관하는 취미가 생겼다. 특히 K리그 경기는 대한민국 20개 넘는 도시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만큼 경기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관광지, 맛집들을 연계해 여행 계획을 짜곤 한다.
전북의 홈구장이 있는 전주에 방문하면 육회비빔밥 한 그릇으로 식사하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그다음 지역 맥주 브루어리에서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수원에서 슈퍼매치가 있다면 슈퍼매치 경기 후, 수원 통닭 거리에서 갈비 통닭에 맥주 한잔하면 이보다 좋은 여행 코스가 또 있을까?

아직도 못 가 본 국내 경기장과 도시가 많아 앞으로의 여행이 더 기대된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인 K리그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을 많이 찾았으면 한다. 직관이 처음이라면 집 근처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경기를 관람하거나 유명한 더비 경기를 보는 것도 추천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친선 경기나 월드컵 예선들도 초보자가 보기에 좋은 경기들이니 직관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직관을 위한 휴가를 허락해주시고, 업무를 분담해주신 국장님 이하 CBS 선후배님들 감사합니다!

전주 비빔밥과 전북의 홈구장 '전주성' 직관